

忠州地域 新羅 築城의 變化

노병식*

-
- I. 머리말
 - II. 신라 進入期 충주산성의 축조
 - III. 國原小京의 설치와 國原城 축조
 - IV. 中原京으로 개칭과 그 이후의 축성
 - V. 맺음말
-

I. 머리말

한반도 중부 내륙에 위치한 충주지역은 남쪽으로 소백산맥 남쪽으로부터 이어지는 鷄立嶺(하늘재)·鳥嶺(새재) 등의 嶺路가 충주지역을 통과하여 남북을 이어주고 있으며, 충주분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남한강의 水路는 동서를 이어주고 있어 고대부터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리고 충주는 남한강변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갖고 있고, 철이 많이 생산되던 지역이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고대부터 人的·物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지리적 요충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다양한 성곽이 축조되었다.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삼국시대 각국의 영역확장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계곡 및 평야를 따라 이어지는 교통로가 교차하는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전쟁에 대비하여 축조된山城은 각국의 주요 거점지역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주지역은 삼국시대에 백제·고구려·신라가 차례로 차지한 지역으로서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국가 간에 전쟁이 심화되면서 주요 교통로를 따라 현저한 요충지에 산성을 축조하여 군사적·행정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충주지역에서 성곽의 축조와 경영은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이루어졌으며, 오늘날의 충주지역에는 모두 15개소의 성곽이 알려져 있다.¹⁾ 한편 최근의 충주지역 성곽에 대한 고고학적 지표조사와 발굴 조사 성과 등을 근거로 하여 충주지역의 고대 성곽을 구분할 수 있다.

충주지역에서 백제는 남한강과 달천이 합류되는 지역에 탄금대토성²⁾을 축조하고, 남한강의 남안에 장미산성³⁾을 축조하였다. 한편 고구려의 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신라의 축성 가운데 충주산성은 신라 진입기에 축조되었고, 삼국통일 이전에 새로이 國原城으로 추정되는 대림산성이 축조되었으며, 이후 신라 말기에 용관동산성·장태산성·견학리토성 등 다양한 유형의 성곽을 축조 발전시켜 나아갔다. 이들 성곽은 입지·규모·구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충주지역의 신라 성곽 가운데 신라 국원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축성

-
- 1) 韓國城郭學會, 2007, 『韓國 中部內陸圈 山城群의 基礎資料 調査報告書』, 360~361쪽.
 - 2) 忠州工業專門學校, 1991, 『彈琴臺 地表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2, 『忠州 彈琴臺』; 淸州大學校 博物館, 2002, 『忠州市 文化遺蹟』, 43~44쪽;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忠州 彈琴臺土城 I -2007년도 발굴 조사 보고-』.
 - 3) 忠北大學校박물관, 1992, 『中原 薔薇山城 地表調査報告書』; 淸州大學校 博物館, 2002, 앞의 책, 52~54쪽;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3, 『薔薇山城 -정비에정구간시굴조사보고서-』; 中原文化財研究院, 2006, 『忠州 薔薇山城 1차 發掘調査 報告書』.

기록이나 경영에 대해 자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충주지역의 고대 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지표조사와 발굴 조사를 통해 신라유물이 발견된 산성들은 신라의 축조, 혹은 경영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출토된 유물들이 시간적 차이를 보이면서 입지·규모·구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축성양상의 시간적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충주지역에서 신라가 진입한 이후 이루어진 축성의 변화에 대해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신라 진입기의 축성, 국원소경의 축성, 중원경으로 개칭과 그 이후의 축성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충주지역 신라 축성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한반도 중부내륙지역의 고대 성곽의 변화와 보편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는 따라서 한반도 내륙지방 성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의 築城史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Ⅱ. 신라 進入期 충주산성의 축조

1. 신라의 진입

6세기 중반에 신라 진흥왕은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면서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신라의 충주지역 진출은 『三國史記』에서 살펴보면 眞興王代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A-1. 진흥왕 12년(551) 3월에 왕이 순행 중에 낭성에서 묵으며, 우륵과 그의 제자인 이문이 음악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그들을 초청하였다. 왕은 하림궁에 머무르며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 왕이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고, 이를 기회로 10 곳의 郡을 빼앗았다.⁴⁾

4)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2年 3月 “王巡守 次娘城 聞

A-2. 진흥왕 14년(553) 가을 7월에 백제의 동북쪽 변두리를 빼앗아 新州를 설치하고 阿滄 武力을 軍主로 삼았다.⁵⁾

A-1·2는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에 대해 지금의 충주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상황들로 이해된다. A-1에서 보듯이 신라는 551년(진흥왕 12)에 왕이 居柒夫 등에게 고구려를 치도록 명했고, 그 결과 10개 군을 얻었다. 여기에 竹嶺은 忠州~淸風~丹陽~榮州~慶州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단양 赤城山城에서 발견된 <단양적성비>를 통해 대략 551년 경 고구려의 赤山縣이었던 적성은 신라가 고구려에게 빼앗은 10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는 이 시기를 즈음하여 지금의 忠州·丹陽 등 소백산맥 이북에 대한 지배를 다져 나아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충주산성의 축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주지역의 신라 진출은 6세기 중후반경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신라가 처음 충주지역에 진출하였을 때에 축성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고고학적으로 충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 가운데 6세기 중후반경의 유물이 발견된 산성은 장미산성과 충주산성이 있다.

장미산성은 탐평리 북방의 배후에 축조되어 있으며, 성벽은 內托한 구조로서 기단보축시설 및 현문식성문 구조가 보이지 않고, 성돌 입면을 장방형으로 가공하여 수평을 맞추어 쌓아올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미산성은 성내에서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으므로 백제가 초축한 것으로 보는 견해⁶⁾와 단순히 토기만으로 백제가 쌓았다고 단

于勒及其弟子尼文 知音樂特喚之 王駐河臨宮 令奏其樂… 王命居柒夫等 侵高句麗 乘勝取十郡.”

5)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4년 秋7月 “取百濟東北鄙 置新州以阿滄武力軍主.”

6) 충북대학교박물관, 1992, 앞 책 ; 서영일, 2005, 「한성백제시대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배경 연구」, 『문화사학』 23.

정할 수 없어 고구려 축성설이 제기되기도 한다.⁷⁾ 이에 반하여 성벽의 형태나 축조 방식이 인근의 신라 유물만 출토되는 성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라가 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⁸⁾도 있다. 그리고 장미산성에서 6세기 중후반경의 단각고배편이 출토되고 있음은 신라가 진입한 이후 신라가 차지하여 據點城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주산성은 고고학적으로 6세기 중후반경 신라 북진기의 축성양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면서 성내에서 대략 6세기 후반 내지는 7세기 초의 신라 유물이 발견되고 있음은 신라가 충주지역에 진입하여 처음으로 축조한 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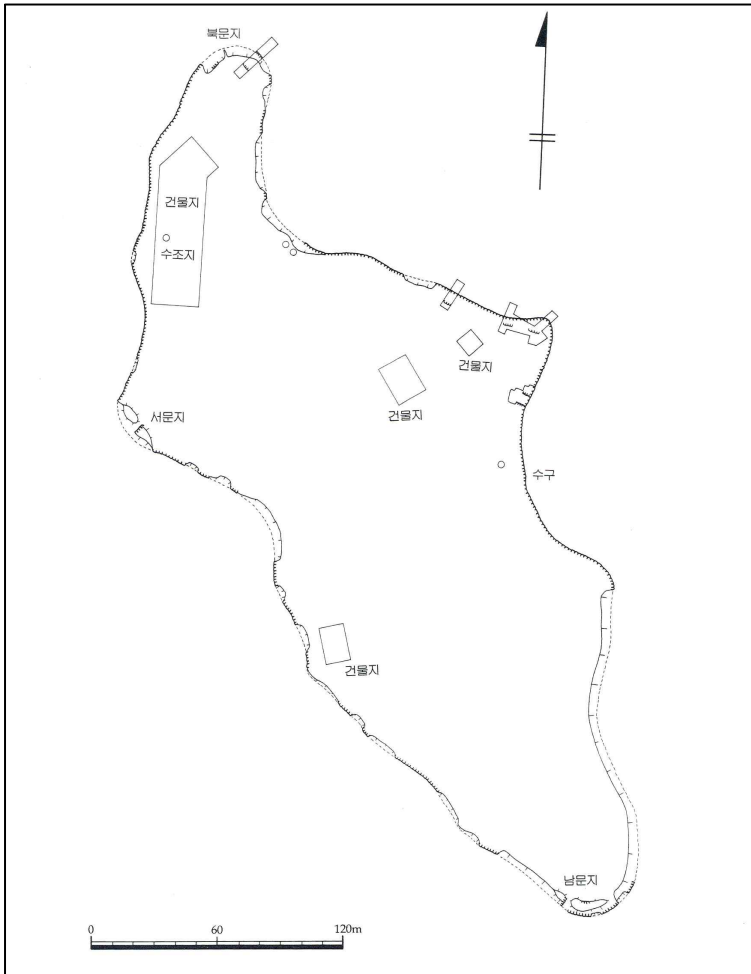
충주산성은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동과 안림동의 경계인 남산(해발 636m)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두 개의 계곡 상단을 둘러싼 둘레 1,120m의 석축산성이다.

충주산성의 동북쪽으로 남한강이 남류하여 흐르고 있는데, 서북쪽으로는 충주평원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서 북쪽으로 마즈막재와 남쪽으로 잣고개의 통로를 공제할 수 있는 위치이다.

1984년도 지표조사에 의하면 충주산성은 南山城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마고할멈의 전설과 관련하여 老姑城 혹은 麻姑城이라고도 하며, 錦鳳山城 등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여기에 南山城이라고 함은 방향성을 보이기도 하며, 신라 초기에 경주지역에서 일찍이 南山城을 쌓았음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성격으로서 도시의 배후에 축조되어 기능한 것일 수 있다. 한편 老姑城 혹은 麻姑城은 대개 6세기 후반 경에 신라가 진출하여 쌓은 지역에 축조된 산성에서 전해오는 설화로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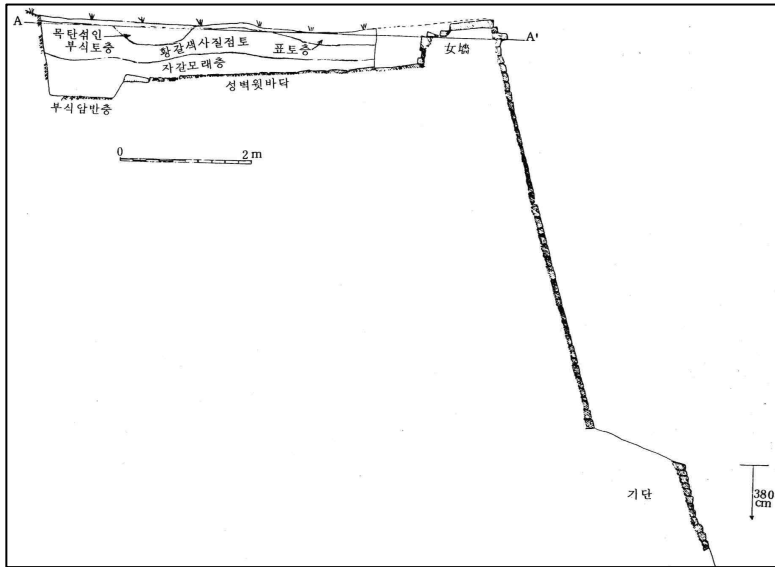
7) 박중균, 2003, 「장미산성의 구조 및 축성 주체에 대한 일고찰」, 『한국성곽연구총서』 2, 5쪽.

8) 沈光注, 2003, 「신라성곽」, 『京畿道の 城郭』, 172~177쪽.



<그림1> 충주산성 평면도
(충주공업전문대학박물관, 1986)

충주산성으로 진입하는 성문은 모두 4개로서 능선 모퉁이에 만들어져 있으며, 懸門式構造이다. 성벽은 판상할석을 이용하여 수평을 이루게 쌓았으며, 기본적으로 경사면을 이용하여 내탁하여 올라와 윗부분은 内外夾築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2> 충주산성 성벽 토층 및 단면도
(충주공업전문대학박물관, 1986)

1986년도에 城壁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内外夾築의 성벽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楣石이 없는 女牆이 너비 1.1m, 높이 70cm, 위쪽 너비 65~70cm 규모로 확인되고, 성벽의 바깥쪽에서 基礎 下段部에 補築이 확인되었다.⁹⁾

1993년 발굴 조사에서는 동문의 구조가 懸門 양식으로 밝혀지고, 水口와 관련하여 성벽 안쪽의 入水口 및 導水路가 확인되었다.¹⁰⁾

1998년 발굴 조사에서는 東門은 안쪽에 半圓形의 集水施設을 갖춘 懸門樣式임이 밝혀졌으며, 新羅系 유물만이 출토되어 新羅에 의해 축조되어 경영된 것으로 밝혀졌다.¹¹⁾

2001년에는 동문지 안쪽의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8월과

9) 충주공업전문대학박물관, 1986, 『충주산성 및 직동고묘군 발굴 조사보고서』.

10) 충주산업대학교박물관, 1995, 『충주산성 2차 발굴 조사보고서』.

11)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 『충주산성동문지 발굴 조사보고서』.

2003년 7월에 貯水池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실시하여 구조가 확인되었는데, 윗면은 원형을 이루면서 池岸은 3단의 계단을 내려가면서 아래 부분이 사다리꼴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혔으며,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대의 신라 단각고배편, 회색계열의 태선문조 기와편·재갈·철축 등이 출토되었다.¹²⁾

2006년에 발굴 조사된 북문지는 懸門樣式으로 開口部の 규모는 4.5~4.7m·길이 8.1m의 규모로 확인되었으며, 개구부의 바닥에서 문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확쇠 1점 및 성문 結構用 철제 못이 출토되어 門口部の 너비를 2.7~2.8m의 규모로 확쇠를 목재에 고정시키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문의 두께는 철못을 기준으로 하여 16~17cm로 추정하였다.¹³⁾

한편 충주산성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대각이 벌어지고 각단이 밖으로 말리거나 두툼하며 투창이 투공화된 것으로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고배가 출토되는 인근 유적으로는 루암리 고분군¹⁴⁾외에 하구암리 고분군¹⁵⁾, 통점고분군¹⁶⁾, 수룡리고분군¹⁷⁾ 등이 있다. 한편 주로 고분에 부장되고 있는 高杯나 附加口緣臺附長頸壺가 산성에서 출토되어 제의나 어떠한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의 시기는 주변 유적들과 비교한 결과 토기류의 사용시기는 대략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경으로 보았다. 그런가하면 충주산성 안에서 아직까지 고려나 조선시대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충주산성은 5세기 후반에 축조된 삼년산성과 비교하여 성벽

12)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5, 『충주산성-동문남측저수지 시·발굴 조사보고서』.

13) 조순홍·조록주, 2006, 「충주산성 북문지 발굴 조사 개요」, 『한국성곽학보』 제9집.

14)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3, 『中原樓岩里古墳群』.

15)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0, 『忠州 下九岩里 古墳群 地表調査 및 試掘調査 報告書』.

1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中部內陸高速道路 忠州區間 文化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17)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충주 수룡리유적』.

구조가 다소 약화되어 있으나 신라의 전형적인 축성기법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6세기 중엽 이후의 신라계 유적에 볼 수 있는 유물만이 출토되고 있어 신라 진입기에 축조된 성곽으로 보인다. 신라는 충주지역에 진입하여 탐평리 북방 배후에 있는 장미산성을 계속 사용하였고, 새로이 충주의 동남쪽 산위에 충주산성을 축조하여 교통로를 따라 남북선상에 주요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충주산성의 立地는 장미산성보다 높고 험한 지역에 축조되어 있음은 행정적 治所로서의 기능보다는 군사적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3. 충주산성의 특징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하여 551년(진흥왕 12) 3월에 娘城을 순행하였다¹⁸⁾는 것을 지금의 충주지역으로 비정한다면, 이 시기를 즈음하여 신라가 충주 지역에 진출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6세기 중후반경 신라의 북진은 점차 주요 점령지역에 대해 축성을 확대하였고, 나아가 주요 교통로를 따라 산성을 쌓았으나 구체적인 축성기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는 삼국 간에 영토쟁탈전이 치열하던 시기로서 신라는 기왕의 축성에서 점차 주요 점령지역에 대해 축성을 확대해 나아가 주요 교통로를 따라 주요 산성이 이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충주지역을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남한강은 큰 하천으로서 水運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남한강 상류지역으로부터 臨溪 松溪里山城(長贊城)~旌善 古城里山城~寧越 正陽山城(王儉城)~丹陽 溫達山城~丹陽 赤城山城~忠州山城~忠州 薔薇山城~麗州 婆娑山城 등에서처럼 강의 南岸에 줄을 이어 축조되어 있음은 주목된다. 한편 남한강 남안에 위치한 산성들은 그 남쪽의 주요 교통로를 따라 방사선상으로 주요 산성과 연결되면서 이어지고 있다.

18)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2年 春正月 “開元開國 三月 王巡守 次娘城.”

신라가 충주지역에 진입하면서 축조한 충주산성의 성내에서 백제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6세기 후반 7세기 초반의 신라유물만 출토되고 있음은 삼국 간에 영토쟁탈전이 치열하던 6세기 중후반경에 이르러 신라의 석축산성이 충주지역에 과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주산성은 6세기 중후반 이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산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주산성의 입지는 평지의 배후에 위치하면서 교통로를 따라 이어지는 고개 부근의 산록의 능선에 축조되어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요지에 據點을 형성하여 전술적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둘째, 충주산성 성벽의 구조는 공통적으로 基底部를 조성한 후 내측과 외측을 함께 축조하는 内外夾築기법으로 축조하여 대체로 성벽의 높이가 높다. 성벽 입면에 사용된 성돌은 板石形 석재를 이용하여 잘 가공한 것이 아니고, 속채움 또한 흙과 잡석이 아닌 面石과 동일한 板石形 석재를 이용하여 돌로 채움으로써 견고한 성벽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충주산성의 축조양상은 5세기 후반에 축조된 삼년산성과 비교하여 성벽구조가 다소 약화되어 성벽의 높이가 낮아지고, 基壇補築 구조는 간략화되거나 보이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충주산성의 산성의 성벽 높이는 대체로 7~10m로서 이전보다 낮은 형태이며, 신라성곽의 특징인 기단보축은 일부 계곡부 등에서만 보인다. 성벽의 높이가 낮아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축조되고, 그 효용성과 축성공력의 문제 등으로 점차 축소되거나 사라졌을 수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성벽의 평면 형상에서 아직 방형의 雉城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曲城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셋째, 충주산성의 성문은 능선의 낮은 부분 바로 옆에 만들어지는 데, 성문의 구조는 주로 다락문(懸門)으로서 사다리를 이용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성내의 가장 낮은 위치에 반월형의 集水を 위한 시설이 만들어지고, 水口의 구조는 성벽통과식으로 出水口의 입면 모습은 사다리꼴 특징으로 보이고 있다.

넷째, 충주산성의 둘레 1,120m로서 청주 부모산성의 둘레 1,135m와

비슷하다. 이들 지역에 신라가 진입한 초기에 비슷한 크기의 성곽이 축조되었음 이들 지역이 경주를 중심으로 보면 소백산맥 너머의 중부 내륙지역에서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의 위상이 비슷한 상황에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충주산성의 이름이 老姑城 혹은 麻姑城으로 전해지고 있음은 대개 6세기 후반 경에 신라가 진출하여 쌓은 지역에 축조된 산성에서 전해오는 설화로서 주목되며, 상대적으로 대림산성보다 먼저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주산성의 특징은 5세기 후반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던 신라 석축산성의 전통이 6세기 중후반 내지는 7세기 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전의 성벽구조보다 다소 약화되어 일부 지역의 성곽에서 살펴보면 성벽의 높이가 낮아지고, 基壇補築 구조는 간략화되거나 보이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신라는 한강유역을 진출하기 이전 단계에서 주요 변경지역은 물론, 교통로를 따라 주요 군사적 요충지에 석축산성을 축조하여 거점을 마련하여 군사적 성격을 가진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주변의 여러 세력을 흡수 통합하고 기왕의 지배질서를 해체하여 나아갔다.

6세기 중후반경 신라 영역 확장기의 축성은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小白山脈 以北 진출과정에서 이루어진 신라 축성의 특징과 비교하여 다소 변화 발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Ⅲ. 國原小京의 설치와 國原城 축조

1. 국원소경의 설치

신라는 충주지역을 차지하여 국원소경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관련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B-1. 진흥왕 18년(557)에 國原을 小京으로 삼았다¹⁹⁾

B-2. 진흥왕 19년(558) 봄 2월에 귀족의 자제와 6部の 부유한 백성을 國原으로 옮겨서 그곳을 채웠다.²⁰⁾

B-3. 진흥왕 26년(565) 가을 8월에 阿滄 春賦에게 명하여 나아가 國原을 지키게 하였다.²¹⁾

위의 B-1·2·3은 신라의 국원소경 설치와 운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신라는 551년(진흥왕 12) 이전부터 충주지역을 領有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진흥왕 18년(557)에 國原小京을 설치하여 王京의 貴戚子弟와 豪民을 옮겨 살게 하여 정치문화적인 중심지로 삼으려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

신라 진흥왕은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하여 한강유역을 차지하였으며, 557년(진흥왕 18)에 국원소경을 설치하여 충주지역을 비롯한 한강유역을 지속적으로 영유하며 경영하는 거점이 되었다.

2. 국원성의 축조

충주지역은 국원소경으로서 삼국통일이 완수되기 이전인 673년(文武王 13년)에 國原城이 축조되었다.

신라 국원성과 관련한 사료는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4. 文武王 13年(673) 9월에 國原城[옛 亂長城], 北兄山城, 召文城, 耳山城, 首若州의 走壤城[또는 迭巖城], 達含郡의 主岑城, 居烈州의 萬興寺山城, 歆良州의 骨爭峴城을 쌓았다.²²⁾

19)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8年 “以國原爲小京.”

20)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9年 春2月 “徙貴戚弟 及六部豪民 以實國原.”

21)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26年 秋8月 “命阿滄春賦 出守國原.”

22) 『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13年 秋8月 “築國原城(古亂長城) 北兄山城 召文城 耳山城 首若州走壤城(一名迭巖城) 達含郡主岑城

B-5. 中原京은 본래 高句麗 國原城 이었는데 新羅가 이를 평정하였다. 진흥왕이 小京을 세우고 文武王때 城을 쌓았는데, 주위가 2,592步였다. 景德王이 中原京으로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은 忠州이다.²³⁾

B-4에서 국원성은 557년(진흥왕 18)에 國原小京을 설치된 후 116년이 지나서 축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國原城의 옛 이름이 薊長城이었다고 하였다는 것은 이전에 백제나 고구려가 국원성을 未乙省 또는 託長城이라고 부른 것처럼²⁴⁾ 또 다른 별칭으로 불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고구려의 국원성을 완장성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그 이전 백제 때부터 완장성으로 불리던 지역에 성을 쌓은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때 신라의 국원성은 국원소경에 축조한 것이며, 그 실체는 산성일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원성이 축조된 시기는 673년으로서 신라에 의해 삼국통일이 이루어지기 3년 전에 이루어졌다. 이 당시의 상황은 唐과의 전쟁 중이었던 시기이므로 사회적 배경은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治所로서 城을 비정하기 보다는 唐과 전쟁으로 인해 남한강 유역을 장악하려는 軍事的 성격이 더 강했던 것으로 생각²⁵⁾할 수도 있다. 한편 이시기에 신라는 지방 주요 요충지에 산성의 축조가 이루어졌음을 주목된다. 따라서 문무왕대의 축성은 당과의 전쟁에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삼국통일 이후 통치제도에 대비하여 주요 지방의 안전과 통치를 고려하여 축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居烈州萬興寺山城 歆良州骨爭峴城.”

23) 『三國史記』卷第25, 「雜志」第4, 地理2, 新羅 漢州 中原京 “中原京 本高句麗國原城 新羅平之 眞興王置小京 文武王時築城 周二千五百九十二步 景德王改爲中原京 今忠州.”

24) 『三國史記』卷第37, 「雜志」第6, 地理4, 高句麗·百濟 “漢山州 國原城 一云未乙省 一云託長城.”

25) 張俊植, 1998, 「신라 중원경연구 -위치 비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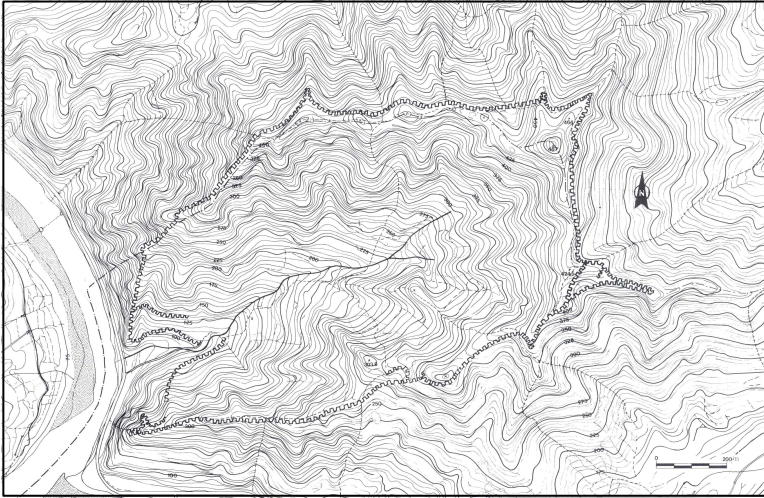
B-5에서 國原城의 규모가 2,592步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은 주목된다. 이러한 규모의 성곽에 대하여 지금까지 평지에 위치한 충주 고읍성에 집중되어 왔다. 한편 新羅 國原小京의 중심인 國原城에 대하여 충주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平地 및 구릉을 연결하여 계획적으로 둘레 약 6km를 말각정방형의 外郭을 축조하고 안쪽에 內郭을 두어 二重構造의 城郭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으나,²⁶⁾ 최근 호암동지역에서 확인된 토성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고려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²⁷⁾ 따라서 신라 국원성이 평지성이었는가에 대해 반문을 할 수밖에 없으며, 국원성의 성격은 주변의 山城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신라의 국원성은 현전하는 대립산성으로 비정된다.

대립산성은 충주시 향산동 산 45번지 해발 487.5m의 대립산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석축산성이다. 대립산은 충주의 鎭山으로 동서로 길게 이어지면서 충주와 계림령 사이에서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이 산성은 둘레는 약 4,906m에 달하는 대규모 포곡식 산성으로서 성내의 水量이 풍부하고 내부면적이 비교적 넓으며, 이 산성 위에는 조선시대 후기까지 사용된 大林山烽臺가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대립산성의 실측 둘레 4,906m는 1.8m를 1보로 하여 계산하면²⁸⁾ $4,906m \div 1.8m = 2,725$ 步로서 『삼국사기』에 보이는 國原城의 둘레 2,592步(약 4,666m)와 비슷한 규모이다.

26) (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忠州邑城 地表調査報告書』.

27) 노병식, 2014, 「신라 國原城에 대한 再論」, 『東亞細亞 歷史文化論叢』, 原明 張俊植 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刊行委員會, 서경문화사, 415~438쪽; 2014, 「한반도 중원지역 고대 도시 관련 유적의 특징」, 『한·중 중원지역 제철문화와 고대도시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완공기념 국제학술회 자료집-』, 103~135쪽,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8) 1999년 이성산성 7차 발굴 조사 중 C지구 저수지에서 길이 29.8cm인 당척의 실물이 출토된 바 있다(한양대학교박물관, 2000, 『이성산성 7차 발굴 조사 보고서』).



<그림3> 충주 대림산성 평면도(상명대학교박물관, 1997)

대림산성의 성벽구조는 일부 잔존하는 구간에서 살펴보면 표면이 석축으로 남아 있으나, 대부분 붕괴되어 土壘만 남아 있다. 이러한 양상은 표면을 면석으로 처리하고 土石으로 뒷채움 한 구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벽 입면의 구조는 2가지 양식이 보이고 있는데 古式은 성벽의 입면을 장방형으로 다듬은 할석으로 수평눈줄맞춤 방식으로 축조하여 臣字形 쌓기를 하였으며, 후대에 수축된 부분은 남벽의 일부분에서는 성벽의 축조상태가 다소 조잡하면서 성벽에 폭과 깊이가 약 15cm 정도로 수직홈이 보이는 곳이 6개소가 있다. 한편 잔존하는 성벽의 높이는 약 4~6m이고, 4개의 城門과 暗門 등을 두고 있으며, 자연지형을 따라 축조하여 굴곡을 이루며 특히 방어에 취약한 부분에 10여 곳의 甬道(雉城)가 있으며, 성안을 일주하면서 안쪽으로 4~5m의 內環道가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가운데 초축은 장방형으로 다듬은 할석으로 수평눈줄맞춤 방식으로 축조하여 臣字形 쌓기를 한 것이고, 고려 시대에 이르러 수직홈구조와 甬道 등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대림산성의 입지는 충주지역 남쪽의 높은 산지에 위치하여 수원이

풍부하며, 고대에 축조된 산성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산성으로서 주목된다. 성벽의 구조는 신라 진입기에 축조된 충주산성과는 차이를 보이며, 古式의 축성기법은 오히려 장미산성에서 보이는 성벽의 구조와 유사하여 주목된다. 이러한 변화는 삼국통일을 이전에 문무왕대의 축성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대립산성의 축조시기와 관련해서는 고고학적으로 규모가 4km가 넘는 대규모이며, 성내에서는 출토된 유물이 삼국시대의 것은 보이지 않고 印花紋土器片·高杯 뚜껍편 등이 있음을 고려하여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스런 정치상황 속에서 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보다 상한하여 보면 『삼국사기』에 보이는 국원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13세기를 전후한 고려 靑磁片과 魚骨紋瓦片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고려시대에 대몽고항쟁의 중심지인 忠州山城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²⁹⁾ 성벽을 따라가며 주요 능선에 축조된 甬道와 성벽 입면이 수직함을 이루는 구조는 몽고침입기에 개축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 국원성의 축조가 삼국통일을 완수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음은 주목된다. 한편 국원성과 같은 시기에 축조된 신라의 성곽들은 대부분 산성들이지만 산성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석축산성으로서 구조적으로 입면의 형태 및 단면의 형태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성벽 입면은 장방형의 할석을 가공한 면석이 사용되고 토석으로 뒷채움을 한 土芯石築法으로 축조되었으며, 각각의 성들은 수평눈줄맞춤 방식으로 축조된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서 土芯石築法으로서 토축 부분과 석축부분의 연결 부분에 우수가 스며들 수 있어 구조적인 취약하며, 이 성을 9월에 축조하였다고 함은 축성이 시작된 시점을 의미한다면 그 축성공사 시기는 동절기로서 성벽의 기초가 부실하여 쉽게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신라는 충주 지역에 진출하여 먼저 충주산성을 먼저 쌓고, 후에 국원성을 축조하여 방어체계를 강화해 나아갔다. 신라는 북방의 요충지인 충주지역에 대해 삼국을 통일 이후 인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도시

29) 상명대학교 박물관, 1977, 『충주 대립산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의 배후에 기왕의 충주산성보다 더 큰 산성을 축조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국원성의 축조는 경주지역의 평지에 위치한 궁성 주위의 산성을 배치한 양상과 비교된다. 여기에 중원경은 서북쪽 남한강 건너에 위치한 장미산성과 남쪽의 충주산성 및 대립산성(국원성)을 가진 도시로서 방어체계가 성립되었으며, 점차 주변의 교통로를 따라 소규모의 성곽을 축조하여 나아갔다.

한편 국원소경의 축성은 역사적으로 삼국통일을 이루어가면서 인구의 증가 및 경제적 발전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방체계가 수립되어 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양식의 성곽이 등장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 탑평리의 배후에 축조되어있는 장미산성과 지금의 충주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배후의 동남쪽에 인접한 충주산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국원성을 축조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후에 중원경의 背後山城으로서 작용하게 되고, 후에 鎭山으로 불리었던 것이다.

2. 국원성의 특징

國原小京에는 673년(문무왕 13) 9월에 둘레가 2,592步의 國原城(옛 薊長城)을 쌓았다.³⁰⁾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7세기 중후반 통일전쟁기인 660년(무열왕 7)부터 676(문무왕 16)에는 성에 대한 기록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문무왕때에는 주변의 백제와 고구려 제 세력을 복속한 후, 당과의 갈등으로 羅唐戰爭이 발발하여 唐軍을 축출하는 시기로서 통일전쟁기의 치열한 전투 기간에 축성이 이루어졌다.

국원성이 축조된 시기는 신라에 의해 삼국통일이 완수되기 3년 전의 일이다. 이 당시는 당과 전쟁 중이었던 시기이므로 국원성 축조의 정치·군사·사회적 배경은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문무왕 때에 통일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국원성을 축조한 축성배경은 治所로서 城을 갖춘다고 하기 보다는, 당과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의 방어력 보완과 남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군사

30) 『三國史記』 卷第35, 「雜志」 第4, 地理2, 中原京條.

적 성격이 더 강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³¹⁾ 672년(문무왕 12)에 신라 군사와 고구려 군사가 당나라 군사와 맞서 싸워 수천 명의 목을 베었다는 기록³²⁾에서 보듯이 신라가 삼국을 아우르는 시기에 당과 투쟁에 들어가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축조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문무왕때의 축성은 삼국통일 이후 통치제도에 대비하여 주요 지방의 안전과 통치를 고려하여 축성하였고, 신라 왕경의 외곽 방어망 완성과 지방 주요 요충지의 축성이 완성되었다. 7세기 후반경 문무왕대를 즈음하여 축조된 주요 도시의 배후에 축조된 석축산성들은 축성된 입지와 석축의 입면 구조에서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원성으로 비정되는 大林山城에서도 마찬가지로이며,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원성으로 비정되는 대립산성은 기왕에 백제가 남한강변의 독립된 지형에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장미산성과 비교하면 보다 발전하여 배후에 높은 산맥이 이어지는 곳으로 이동하여 入保機能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산성의 입지는 평지의 도시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으며, 산성에서 바라보면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입지는 삼국통일이 완성된 이후에 점차 안정화된 단계에서 산성 아래에 도시가 형성되어 평지지역의 거주자들로 하여금 入保籠城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삼국통일 완수기에 축조된 산성은 기왕의 성곽보다 규모가 커져 둘레 2km 이상의 대규모 산성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국원성으로 비정되는 대립산성은 둘레는 약 4,906m로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축조된 장미산성의 둘레 2,940m, 충주산성의 둘레 1,120m보다 규모가 커졌음은 주목된다.

셋째, 국원성으로 비정되는 대립산성의 성벽구조는 이전의 충주산성과 비교하여 성벽의 구조가 변화하였다. 성벽 입면은 장방형의 활석을

31) 張俊植, 1998, 앞 글.

32) 『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12年 秋8月 “… 我兵與高句麗兵逆戰 斬首數千級.”

가공한 면석이 사용되고 성돌의 길이가 개 이빨처럼 긴 모습으로서 일명 犬齒石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단면은 토석으로 뒷채움을 한 土芯石築法으로 축조되었으며, 각각의 성들은 수평눈줄맞춤 방식으로 축조된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國原城으로 비정되는 大林山城은 西原小京의 西原述城으로 비정되는 上黨山城의 석축구조와 상응한다. 이러한 구조는 이전의 6세기 중반~7세기 초의 신라 진솔기 석축산성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삼국통일 이후 백제 및 신라의 축성제도의 이점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수하기 이전인 673년(文武王 13)에 國原小京에 國原城을 축조하였으며, 이때를 즈음하여 청주지역의 西原小京에는 西原述城을 축조하였다. 중원경의 國原城으로 추정되는 대림산성의 둘레는 약 4,906m이며, 서원경의 西原述城으로 추정되는 상당산성은 둘레가 약 4,200m로서 차이를 보이나 대림산성의 수축된 부분에서 고려시대의 확장된 모습이 보이므로 본디 이들 성곽의 둘레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축성은 같은 시기에 왕경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성을 보강하여 왕경의 도시방어체계를 보완하고 지방의 소경을 비롯한 주요 거점에 대한 방어체계를 강화한 것이었다.

7세기 중후반경 삼국통일 완수기에 이루어진 문무왕대의 축성을 살펴보면 672년(문무왕12) 8월에 축조된 둘레 4,360보 규모의 漢山州 晝長城³³⁾은 신라의 북방의 핵심 요충으로서 당시의 신라 王京의 南山城이 2,854步의 규모임에 비교하면 어떤 산성보다도 규모가 크다. 그리고 문무왕이 치열한 守城戰을 치른 北漢山城, 唐軍을 몰아낸 買肖城 전투, 高句麗와 唐軍과 據點을 다룬 七重城 등과 함께 신라 북방 핵심 요충이 이 시기에 마련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³⁴⁾ 그리고 673년(문무왕13) 2월에 西兄山城을 늘려 쌓았으며,³⁵⁾ 같은 해 8월에 沙熱山城

33) 『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27年 秋8月 “築漢山州晝長城周四千三百六十步.”

34) 차용걸, 2011, 「통일신라와 발해성곽의 이해」, 『한국성곽학회 2011년도 추계 학술대회 통일신라발해의 성곽』, 한국성곽학회.

35) 『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13年 春2月 “增築西兄山城.”

을 증축하고,³⁶⁾ 같은해 9월에 國原城(古藪長城, 충주)·北兄山城(경주)·召文城·耳山城·首若州의 走壤城(迭巖城)·達含郡의 主岑城(강원 고성)·居烈州(거창)의 萬興寺山城·歙良州(양산)의 骨爭峴城 등을 쌓았다.³⁷⁾ 그리고 679년(문무왕19)에 南山城³⁸⁾을 늘려 쌓는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주요 지역에 많은 축성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축성은 당과의 전쟁에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삼국통일 이후 통치제도에 대비하여 주요 지방의 안전과 통치를 고려하여 주요 요충지에 축성이 완성되었으며, 이전보다 큰 규모의 산성들이 축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의 축성은 삼국통일 이후 주요 지방도시에 대한 재편성과 행정 중심지역에 대한 축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7세기 후반경에 축조된 국원소경의 국원성은 이 지역의 안전과 통치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대규모 축성으로서 삼국통일 이후 신라 방어체계의 재편단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원소경은 백제 때 축조된 장미산성과 신라 진입기에 축조된 충주산성, 그리고 삼국통일 완수기에 축조된 대림산성을 경영하면서 자체적인 도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국원소경은 점차 안정화된 단계에서 산성 아래에 계획된 도시가 형성되었고, 국원성은 평지지역의 거주자들로 하여금 入保籠城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V. 中原京으로 개칭과 그 이후의 築城

1. 중원경으로 개칭과 그 이후의 변화

36) 『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13年 秋8月 “築沙熱山城.”

37) 『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13年 秋9月 “築 國原城(古藪長城) 北兄山城 召文城 耳山城 首若州走壤城(一名迭巖城) 達含郡主岑城 居烈州萬興寺山城 歙良州骨爭峴城.”

38) 『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19年 秋8月 “增築南山城.”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수한 이후, 지금의 충주지역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景德王이 中原京으로 고쳤다.

C-1. 景德王이 中原京으로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은 忠州이다.³⁹⁾

眞興王 때에 國原小京이 설치된 후에 景德王 때에 中原京으로 불리기까지는 대략 20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후대의 지리지에 그대로 답습되었다.

그런데 중원경이라는 명칭은 그렇게 오래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후대의 기록에서 중원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마도 小京보다 京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원경은 그리 오래 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삼국사기』에서 살펴보면 9세기경 혼란기에 이르러서 다시 國原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원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2. 憲德王 14년(822) 3월에 熊川州 도독 憲昌이 아버지 周元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 (中略) 武珍·完山·菁州·沙伐의 4개 州 都督과 國原·西原·金官의 仕臣과 여러 郡縣의 수령을 협박해 자기 소속으로 삼았다. … (下略)⁴⁰⁾

C-3. 897년(眞聖王 11) 그때 梁吉은 여전히 北原에 있으면서 國原 등 30여 城을 차지하고 있었다. 善宗의 땅이 넓고 백성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30여 성의 강한 군사

39) 『三國史記』 卷第35, 「雜志」 第4, 地理2, 新羅 漢州 中原京 “… 景德王改爲中原京 今忠州.”

40) 『三國史記』 卷第10, 「新羅本紀」 第10, 憲德王 14年 三月 “熊川州 都督 憲昌 以父 周元 不得爲王反叛 … (中略) 武珍 完山 菁 沙伐 四州都督 國原 西原 金官 仕臣及諸郡縣守令以爲己屬 (下略).”

로써 그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善宗이 몰래 알고서 먼저 공격하여 그를 크게 패배시켰다.⁴¹⁾

C-4. 孝恭王 3년(899) 가을 7월에 北原의 도적 우두머리인 梁吉이 弓裔가 자신을 배신한 것을 미워해 國原 등 10여 곳의 城主들과 모의하여 그를 공격하고자 非惱城 아래까지 진군하였으나, 梁吉의 병사가 패배하여 도주하였다.⁴²⁾

C-5. 孝恭王 4년(900) 겨울 10월에 國原·靑州(靑州)·槐壤의 도적 수령인 淸吉와 莘萱 등이 城을 들고 弓裔에게 투항하였다.⁴³⁾

C-6. 광화 3년 庚申(900)에 또 태조에게 명하여 廣州, 忠州, 唐城, 靑州(靑川), 槐壤을 치게 하여 그곳들을 모두 평정하였다. 공으로 태조에게 阿漭의 직위를 주었다.⁴⁴⁾

앞서 살펴보았듯이 中原京으로 개칭은 757년(景德王 16)에 이루어졌으나, 불과 65년 이후에 다시 이전에 불리어오던 國原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음은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중원경이란 명칭이 그리 오

41) 『三國史記』 卷第50 「列傳」 第10, 弓裔. “三年丙辰 攻取僧嶺臨江兩縣 四年丁巳 仁物縣降 善宗謂松岳郡漢北名郡 山水奇秀 遂定以爲都 擊破孔巖黔浦穴口等城 時梁吉猶在北原 取國原等三十餘城有之 聞善宗地廣民衆 大怒欲以三十餘城勁兵襲之 善宗潛認 先擊大敗之.”

42) 『三國史記』 卷第12, 「新羅本紀」 第12, 孝恭王 3年 秋7月 “北原 賊帥 梁吉 忌 弓裔 貳已與 國原 等十餘城主 謀攻之 進軍於非惱城下 梁吉兵潰走.”

43) 『三國史記』 卷第12, 「新羅本紀」 第12, 孝恭王 4年 冬10月, “國原 靑州 槐壤 賊帥 淸吉 莘萱 等 舉城役於弓裔.” 靑州은 지금의 청주이다. 『三國史記』 卷50, 「列傳」 弓裔傳에는 “靑州或云靑川”이라 하였고, 『高麗史』 卷1, 태조 즉위 전기에는 靑州'라고 하였다. 따라서 靑州 혹은 靑川으로 표기된 문헌은 靑州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김갑동, 1985, 「고려 건국기의 청주 세력과 왕건」, 『한국사연구』 48 ; 1997, 『나말려초의 호족과 사회변동연구』, 28쪽 ; 정구복 외, 2012,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65쪽).

44) 『三國史記』 卷第50, 「列傳」 第10, 弓裔. “三季 庚申 又命 太祖 伐 廣州 忠州 唐城 靑州(或云 靑川) 槐壤 等 皆平之 以功授 太祖 阿漭之職.”

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라 말기에 보이는 國原은 이전의 中原京과 비교하여 정치적 성격이 달랐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중원경은 興德王(826~836)대에 金陽(808~857)이 中原大尹을 역임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中原府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 견해⁴⁵⁾는 주목된다. 중원부는 신라 말기에 등장하는 이른바 豪族의 시대에 이르러 신라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의 豪族勢力이 자립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중앙으로부터 통제력이 약화되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던 國原이라고 하는 명칭이 강조되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국원성과 관련하여 위의 C-3·4·5에서 城, 城主 등이 등장하고 있음은 중앙의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豪族들이 군사권을 장악하고 강화해 나아갔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城의 실체가 城郭을 의미하는 것인지, 地名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정치적 혼란기로서 城을 중심으로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城이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으나, 이전의 성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주변에 새로운 유형의 성곽이 등장하고 있음은 주목된다.

한편 C-6에서 忠州가 보이고 있음은 함께 기록된 靑州(靑川)에서처럼 분명히 이전의 중원경과는 다른 정치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中原京을 대신하여 中原府, 國原, 忠州 등이 사용되고 있음은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이른바 豪族의 시대에 이르러 신라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940년(태조 23년)에 忠州로 개칭하였다.⁴⁶⁾

45) 배중도, 1989, 「신라 하대의 지방제도 개편에 대한 고찰」, 『학림』 11.

46) 『高麗史』 卷第56, 「志」 第10, 地理.

2. 중원경 이후 새로운 방어시설물의 출현

지금의 충주지역은 삼국통일이 완수된 이후에 景德王이 中原京으로 고쳤다고⁴⁷⁾ 하였음은 지방제도의 재편성과 함께 도시의 경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대략 9州的 이름을 고치고 군현을 소속시킨 757년(경덕왕 16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원소경에서 중원경으로 고쳐지던 시기에 도시의 배후에 위치한 산성은 3곳이었지만, 점차 주변으로 성곽을 축조하여 방어체계를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고고학적 조사에 의해 확인된 龍觀洞山城, 將台山城, 見鶴里土城 등은 주변의 주요 교통로를 따라 요충지에 새로운 防禦施設物이 축조된 것들로서 주목된다.

龍觀洞山城은 충주시 용관동 상용관마을과 이류면 만정리·두정리 경계의 소대기산(해발 268m)에 위치한 둘레 370m의 테피식 석축산성이다. 성벽은 산꼭대기 부분을 끼고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비껴 이어졌는데, 동쪽은 능선을 따랐으며 자연 암벽을 이용한 듯 성돌이 발견되지 않는다. 서쪽은 능선에서 15~20m 아래에 쌓여졌으나 급경사이며 성벽은 무너져서 높이와 규모를 알 수 없다. 성내에서 우물이나 기타 水源 및 水口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산성은 충주시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3km 지점으로 단월동을 지나 達川을 건너면 서쪽에 우뚝 솟아 있는데, 경사가 매우 심하여 험하고 가파르다. 산성의 꼭대기에서 사방의 주위를 바라보면 동쪽으로 달천을 건너 충주분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며, 달천 상류쪽인 수안보 방향과 하류쪽인 탄금대 토성 방향이 훤히 바라보인다. 서쪽으로 산이 중첩되어 있으면서 충주~괴산을 잇는 36번 지방도가 보인다. 따라서 이 산성은 충주의 서쪽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산성에 대한 관련 문헌기록은 없지만 三國時期的 城郭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원경의 서쪽 외곽을 보호하던 산성으로 보인다.⁴⁸⁾

47) 『三國史記』 卷第35, 「雜志」 第4, 地理2, 新羅 漢州 中原京 “… 景德王改爲中原京 今忠州.”

48) 충북대학교호서문화연구소·충주시, 1999, 『文化遺蹟分布地圖-忠州市-』.



<사진1> 충주 용관동 산성 성벽모습 <사진2> 충주 장태산성 모습

將台山城은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와 가금면 하담리 사이에 솟아있는 해발 132.9m를 기점으로 정상부를 둘러싼 돌레 약 398m 정도의 土壘가 內城을 이루고 있고, 그 밖으로 능선과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돌레 약 1,283m의 外城을 갖는 複郭構造의 성곽으로서 외성의 斜面에서 2중의 環壕가 확인되었다. 잔존하는 토루는 산사태 등으로 원형을 상실하였으며, 서쪽능선으로 이어지는 지점에는 능선을 단절하여 만든 壕가 조성되어 있다. 이 성에 대한 관련 文獻의 기록은 없으며, 지난 2011년에 발굴 조사되었다. 내성의 토루는 2시기로 구분되는데 1차 토루는 기초부에 특별한 시설 없이 내외접축으로 낮게 축조되었으며, 강돌무더기와 백제초기의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2차 토루는 1차 토루에 연하여 축조되어 폭이 약 10.5m이고 높이는 약 230cm이며, 여기에서는 통일신라 말기 고려 초기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環壕는 2중으로 되어 있는데 1차환호는 단면 U자형으로 너비 250cm 깊이 91cm로서 여기에서 원삼국~백제 초기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차 環壕는 너비 250cm 깊이 91cm로서 여기에서는 통일신라 말기 고려초기의 토기편과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장태산성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고려하면 일찍이 백제 초기의 방어시설로서 1차 토루 및 부정형의 호가 축조되었고, 2차 토루 및 서남쪽의 능선을 단절하여 만든 壕 등은 신라의 진입과 관련한 것으로서 7~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金銅如來立像 및 線條紋 기와편 등이 출토되고 있음은 적어도 8세기 이전에 2차

219쪽 ; 청주대학교박물관, 2002, 『忠州市 文化遺蹟』, 49쪽.

토루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통일신라 말기~고려 초기에 이르러 다중환호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장태산성의 입지는 충주시 중심지역에서 보면 남한강 건너에 위치하여 남한강과 그 지류인 영덕천이 합류하는 곳에 축조되어 있어 남한강유역은 물론, 북쪽의 엄정면에서 원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중원경의 방어체계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토성에서 출발하여 통일신라 말기~고려 초기에 이르러 多重環壕라고 하는 새로운 방어시설물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장태산성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지금의 충주 중심지역에 설치한 中原京이 점차 발전하면서 중원경의 외곽 방어를 위해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고려 초기까지 경영되다가 廢城된 것으로 보인다.⁴⁹⁾

見鶴里土城은 충주시 新尼面 見鶴里 441일원 해발 110~114미터 높이의 성말마을 뒤편 구릉 윗부분의 끝자락에 위치한 둘레 약 214m 내외의 長方形의 土城이다. 고문헌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나, 일찍이 지표조사되어 알려져 왔다.⁵⁰⁾ 현재 서쪽성벽은 유실되었으며, 성의 바깥쪽 면을 기준으로 북벽 44m, 동벽 58m, 남벽 22m로서 모두 124m 가량 잔존한다. 성벽의 높이는 바깥에서 약 5~5.5m, 성내에서는 최고 2m 정도이다. 잔존하는 성벽을 따라 복원하면 전체 둘레는 약 200m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1년 서벽과 북벽의 일부 및 성내 일부를 발굴 조사하여 성벽이 축조되기 이전의 청동기시대 石斧와 무문토기편 등이 일부 출토되었고, 대부분 고려시대의 도기편들이 출토되었으므로 1차적인 관측은 삼국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고, 2차적인 수축은 9세기를 전후한 시기이며, 고려시대에는 폐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⁵¹⁾ 2001년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북동쪽의 문터와 성내 일부를

49)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3,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 충주간 건설공사 5구간내 충주 장태산·장천리·잠병리·울능리유적』 I.

50) 忠北大學校博物館, 1981, 『中原文化圈遺蹟分布圖索引』; 檀國大學校博物館, 1982, 『中原文化圈精密地表調查報告書-忠州市中原郡-』; 車勇杰, 1984, 『方形土城의 二例』, 『尹武炳博士 回甲記念論叢』.

51) 忠北大學校博物館, 1992, 『中原 見鶴里土城』.

발굴 조사하였다. 성벽 기단은 납작한 할석으로 한줄 돌리고, 높아 3~4m의 版築土壘를 쌓았다. 토성의 성벽은 기본적으로 바깥에 垓子를 만들었는데, 깊이 1.5m로 생토층을 파내어 조성하였다. 성벽의 판축은 대체로 5~10cm 간격을 이루며 수평으로 쌓았는데 아래로 갈수록 점성과 밀도가 높아 단단하다. 남벽은 축조할 때 3.3m 간격으로 기둥구덩을 파고 축조하였으며, 안쪽으로 석렬을 둔 배수로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였다. 성벽 안쪽의 배수구 홈은 판상석을 세워 U자형으로 만들었는데 숯과 빨로 채워져 있었다. 성 내부의 건물터는 모두 할석을 이용하였는데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9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려시대 이후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⁵²⁾ 이 토성의 북동쪽으로는 영남지방에서 충주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가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접하여 조선시대 龍院驛이 위치하고 있다. 이 토성은 9세기를 중심으로 축조되고 사용된 점에서 신라 후기 중원경을 근거지로 하여 발호한 豪族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중원경으로 개칭과 그 이후 축성의 특징

1) 8세기의 축성

지금의 충주지역은 757년(경덕왕 16)경에 중원경으로 변화는 신라 지방제도의 재편성과 함께 지방 주요 도시의 경영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으나, 아직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8세기에 들어서면서 충주지역에서 축성은 직접적인 기록이 전하지 않으나, 신라는 718년(聖德王 17)에 漢山州 都督 관할 안에 여러 성을 쌓은 바 있는데,⁵³⁾ 장미산성의 입면구조가 673년에 쌓은 국원성으로 비정되는 대림산성의 입면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은 이와 관련한 것일 수도 있겠다. 여기에 장미산성의 형태나 축조 방식이 인근의 신라 유물만 출토되는 성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라가 축조한

52) 忠北大學校博物館, 2002, 『忠州 見鶴里土城 II』.

53) 『三國史記』卷第8, 「新羅本紀」第8, 聖德王 17年, “築漢山州都督管内諸城.”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⁵⁴⁾는 주목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새로운 자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시기를 즈음하여 도시의 둘레를 쌓은 平地城이나 牆垣 등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충주지역의 성곽 가운데 중원경으로 개칭되던 시기를 즈음하여 새로이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산성으로 용관동산성과 장태산성이 있다. 용관동산성은 아직까지 직접 확인된 유물은 없으나, 충주지역 서쪽의 비교적 가파른 지형에 축조되어 충주에서 괴산방향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장태산성은 7~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金銅如來立像 및 線條紋기와편 등이 출토되었고, 남한강의 북쪽에서 원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산성은 충주지역 외곽의 산성으로서 기왕에 축조된 장미산성, 충주산성, 대림산성과 함께 중원경의 도시방어체제와 관련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2) 9세기 말 이후의 축성

중원경으로 개칭된 지 얼마 되지 않아 中原府·國原·忠州 등으로 불리고 있었음은 9세기 말 이후로 후삼국이라 일컫는 豪族의 시대에 이르러 신라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의 호족세력이 자립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세기 말 이후 호족 시기의 축성에 대해 기록으로 전하지는 않으나, 최근의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見鶴里土城과 將台山城의 多重環壕 등은 주변의 교통로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성곽을 축조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견학리토성은 구릉지에 위치한 토축성으로 바로 인접하여 영남지방에서 충주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에 축조되어 있으며, 9세기를 중심으로 축조되고 사용된 점에서 이전의 성곽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장태산성의 다중환호는

54) 沈光注, 2003, 앞 글, 172~177쪽.

당초 토성에서 출발하여 이 시기에 이르러 새로이 등장한 방어시설물로서 주목된다. 이처럼 새로이 등장한 축성은 신라 후기 中原京을 근거지로 하여 발호한 이른바 豪族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에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주변에 평야가 발달한 지역의 구릉에 축조된 토성은 이른바 羅末麗初의 토성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 한편 다중환호는 신라의 서원경이었던 청주지역에서 확인된 쌍청리다중환호⁵⁵⁾와 학천리 다중환호⁵⁶⁾ 등이 하나의 형식을 이루고 있어 비교된다.

통일신라 말기, 후삼국 내지 호족시기 축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의 주요 도로 주변에 축조되어 있다. 이는 도시 방어체계와 관련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이 낮은 구릉이나 평지에 작은 堡壘를 만들어 농장용의 城壘를 경영한 것일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유형의 성곽이 출현하고 있다. 견학리 토성은 낮은 구릉지에 위치한 토축성이며, 장태산성의 다중환호는 새로운 방어시설물로서 이전의 성곽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기왕에 축조된 성곽을 재사용하기도 하였다. 장태산성은 당초 토성에서 출발하여 이 시기에 이르러 다중환호라고 하는 새로운 방어시설물이 등장하고 있음은 주목된다. 반면에 이전의 용관동산성은 비교적 가파른 지형에 축조되어 있어 재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일신라 말기, 후삼국 내지 호족시기에 구릉지에 축조된 성곽은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축성은 고대 초기에 구릉지에 축조된 성곽과 비교하여 입지 양상이 비슷하여 주목되지만, 축성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대규모 평지성곽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55) (재)中央文化財研究院, 2006, 『五松 生命科學園地敷地內 清原 雙清里 多重環壕』; 도문선, 2006, 「統一新羅末 清原 雙清里 多重換濠遺蹟의 築造背景」,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8, 「清原 雙清里 多重環濠의 築造勢力和 易吾加菴村의 存在」, 『한국고대사연구』 50, 한국고대사학회.

56)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 2차구간) 건설공사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 조사 약식보고서」.

IV. 맺음말

지금까지 충주지역 신라 축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라가 충주지역에 진입한 것은 551년(진흥왕 12) 한강유역 진출 이후 이루어졌으며, 557년(진흥왕 18)에 國原小京을 설치하고, 673년(문무왕 13)에 國原城을 축조하였으며, 757년(경덕왕 16)에 中原京으로 개칭되었고, 이후 9세기 후반에 이르러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 충주지역에서 신라의 축성은 지배체제의 변화와 함께 축성의 발전을 살필 수 있었다.

신라가 지금의 충주지역에 진출하였을 때에 축성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의 忠州山城은 고고학적으로 6세기 중후반경 신라 북진기의 축성양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면서 성내에서 대략 6세기 후반 내지는 7세기 초의 신라 유물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신라가 충주지역에 진입하여 처음으로 축조한 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충주산성의 입지는 장미산성보다 높고 험한 지역에 축조되어 있어 行政的 治所로서의 기능보다 군사적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충주산성의 城門은 懸門式構造이고, 성벽은 판상할석을 이용하여 수평을 이루게 쌓았으며, 기본적으로 경사면을 이용하여 내탁하여 올라와 윗부분은 内外夾築의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성벽의 바깥쪽에서 基礎 下段部에 補築이 보이며, 성내에 半圓形的 集水施設을 갖추었고, 水口의 구조는 성벽통과식으로 출수구 입면의 모습은 사다리꼴 특징으로 보이고 있고, 성벽의 평면 형상에서 아직 방형의 雉城이 보이지 않고 曲城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충주산성은 신라의 전형적인 축성 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신라 진입기에 축조된 성곽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주산성에서 보이는 특징은 5세기 후반 이후 신라 북진기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던 신라 석축산성의 전통이 6세기 중후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충주산성의 구조는 이전의 성벽구조보다 다소 약화되어 일부 지역의 성곽에서 살펴보면 성벽의 높이가 낮아지고, 기단보축 구조가 간략화 되거나 보이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은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小白山脈 以北 진출과정에서 이루어진 신라 축성의 특징과 비교하여 다소 변화 발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충주산성의 규모는 서원소경이었던 청주지역의 부모산성 둘레와 비슷한데, 이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보면 소백산맥 너머 중부내륙지역에서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의 위상이 비슷한 상황에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557년(진흥왕 18)에 國原小京을 설치하여 충주지역을 비롯한 한강유역을 지속적으로 영유하며 경영하는 據點이 되었으며, 삼국통일이 완수되기 이전인 673년(文武王 13년)에 國原城을 축조하였다. 국원성은 현전하는 大林山城으로 비정된다. 대림산성의 입지는 기왕에 백제에 의해 남한강변의 독립된 지형에 축조된 장미산성과 비교하면 배후로 산맥이 이어지는 특징이 있으며, 이전의 독립된 구릉성지형에서 보다 발전하여 배후에 높은 산맥이 이어지는 곳으로 이동하여 入保機能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성벽의 구조는 성벽 입면에서 장방형의 割石을 가공한 面石이 사용되고 성돌의 길이가 개 이빨처럼 긴 모습으로서 일명 犬齒石이 유행하였으며, 단면은 토석으로 뒷채움을 한 土芯石築法으로 축조되었고, 각각의 성돌은 수평눈줄맞춤 방식으로 축조된 공통점이 있다. 국원소경의 國原城으로 추정되는 대림산성의 둘레는 서원경의 西原述城으로 추정되는 상당산성의 둘레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구조는 이전의 신라 진입기 전형적인 신라 석축산성의 전통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삼국통일 과정에서 얻어진 백제와 고구려 축성제도의 이점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세기 중후반경 신라 문무왕은 당과의 전쟁에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삼국통일 이후 통치제도에 대비하여 주요 지방의 안전과 통치를 위하여 주요 요충지에 대규모의 축성을 완수하였다. 이러한 대규모의 축성은 삼국통일 이후 신라 방어체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충주지역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수한 이후 757년(경덕왕 16)경에 中原京으로 고쳤지만, 얼마 되지 않아 中原府·國原·忠州 등으로 불리고 있었음은 정치적 성격이 달랐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충주지역의 성곽 가운데 중원경으로 개칭되던 시기를 즈음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용관동산성과 장태산성의 토루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중원경의 방어체계와 관련하여 기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산성은 충주지역 외곽의 산성으로서 기왕에 축조된 장미산성·충주산성·대림산성과 함께 중원경의 도시방어체계와 관련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9세기 말 이후로 후삼국이라 일컫는 豪族의 시대에 이르러 신라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의 호족세력이 자립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축성에 대해 기록으로 전하지는 않으나, 최근의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見鶴里土城과 將台山城의 多重環壕 등은 주변의 교통의 요충지나 평야지대에 축조된 새로운 유형의 성곽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 한편 다중환호는 신라의 서원경이었던 청주지역에서 확인된 쌍청리 다중환호와 학천리 다중환호 등이 하나의 형식을 이루고 있어 비교된다. 이처럼 새로이 등장한 축성은 신라 말기 중원경을 근거지로 하여 발호한 이른바 호족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충주지역 신라 축성의 변화는 한반도 중부내륙지역의 고대 성곽의 변화와 보편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논문접수: 2014. 10. 5, 심사시작: 2014. 10. 15, 심사완료: 2014. 10. 30]

주제어 : 충주산성, 국원성, 대림산성, 용관동산성, 장태산토성, 견학리토성, 장태산성 다중환호

【참고문헌】

『三國史記』.

한국역사 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김갑동, 1997, 『나말려초의 호족과 사회변동 연구』.

徐榮一, 2002, 『충북의 고대사회』, 忠北學研究所.

장준식, 1998, 『新羅 中原京 研究』, 학연문화사.

정구복 외, 1997, 『譯註 三國史記』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최일성, 2010, 『중원문화의 중심 충주의 역사와 문화』, 백산자료원.

國立文化財研究所, 1991, 『中原 樓岩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_____, 1992, 『中原 樓岩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2008, 『중원의 산성』.

단국대학교 박물관, 1982, 『中原文化圈精密地表調査報告書 -忠州市·中原郡-』.

상명대학교 박물관, 1997, 『충주 대림산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학술조사보고서 제2책).

(재)中央文化財研究院, 2002, 『충주 수룡리유적』.

_____, 2006, 『五松 生命科學團地敷地内 清原 雙清里 多重環壕』.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06, 『忠州 薔薇山城 -1次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9, 『忠州 彈琴臺土城 I-2007년도 발굴 조사 보고』.

_____, 2011,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 조사 약식보고서」.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忠州邑城 學術調査報告書』.

_____, 2013,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 5구간내 충주 장태산·잠병리·울능리 유적』 본문 I.

- 淸州大學校博物館, 2002, 『忠州市 文化遺蹟』.
- 忠北大學校博物館, 1981, 『中原文化圈遺蹟分布圖索引』.
- _____, 1992, 『中原 見鶴里 土城』.
- _____, 1992, 『中原 薔薇山城』.
- _____, 1993, 『忠州 樓岩里古墳群 發掘調查報告書』.
- 忠北大學校中原文化研究所, 2000, 『충주 하구암리 고분군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00, 『충주 하구암리 고분군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03, 『薔薇山城 -정비에정구간 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05, 『충주산성 -동문 남측 저수지 시·
발굴 조사 보고서-』.
- 忠北大學校湖西文化研究所, 1999, 『忠州山城 東門址 發掘調查 報告書』.
- _____, 1999, 『文化遺蹟分布地圖 - 忠州市-』.
- 忠州工業專門學校博物館, 1984, 『충주산성 종합지표조사보고서』.
- _____, 1986, 『충주산성 및 직동고분군 발굴 조사보고서』.
- _____, 1991, 『彈琴臺 地表調查報告書』.
- 忠州産業大學校博物館, 1995, 『忠州山城 發掘調查報告書』.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구간 문화유적
시·발굴 조사 보고서』.
- 韓國城郭學會, 2007, 『韓國 中部內陸圈 山城群의 基礎資料 調查報告書』.
- _____, 2008, 『충주산성』 (한반도 중부내륙산성 III).
- 한양대학교박물관, 2000, 『이성산성 7차 발굴 조사 보고서』.
- 김갑동, 1985, 「고려 건국기 청주세력과 왕건」, 『한국사연구』 48, 한국
사연구회.
- 盧秉湜, 2014, 「한반도 중원지역 고대 도시 관련 유적의 특징」, 『한·
중 중원지역 제철문화와 고대도시 -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완

- 공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03~135쪽,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 _____, 2014, 「신라 國原城에 대한 再論」, 『東亞細亞 歷史文化論叢』, 原明 張俊植 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刊行委員會, 서경문화사.
- 도문선, 2006, 「統一新羅末 淸原 雙淸里 多重環濠遺蹟의 築造背景」,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 _____, 2008, 「淸原 雙淸里 多重環濠의 築造勢力과 易吾加菴村의 存在」, 『한국고대사연구』 50, 한국고대사학회.
- 박중균, 2003, 「장미산성의 구조 및 축성주체에 대한 일고찰」, 『한국성곽학회총서』 2, 한국성곽학회, 5쪽.
- 배중도, 1989, 「신라 하대의 지방제도 개편에 대한 고찰」, 『학림』 11.
- 백종오·오강석·최진호, 2011, 「忠州 薔薇山城 北壁部の 遺構와 遺物」, 『中原文物』 22.
- 徐榮一, 2005, 「한성백제시대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배경 연구」, 『문화사학』 23호, 한국문화사학회.
- 沈光注, 2003, 「신라성곽」, 『京畿道の 城郭』, 172~177쪽.
- 장준식, 1998, 「신라 중원경연구 - 위치 비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조순흙, 2008, 「忠州 彈琴臺土城 發掘調査 概報」, 『중원문화 정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방향』,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 _____, 조록주, 2006, 「충주산성 북문지 발굴 조사 개요」, 『한국성곽학보』 제9집, 한국성곽학회.
- 車勇杰, 1984, 「方形土城의 二例」,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通川文化社.
- _____, 2011, 「통일신라와 발해성곽의 이해」, 『한국성곽학회 2011년도 추계 학술대회 통일신라·발해의 성곽』, 한국성곽학회.

<Abstract>

The transition of the Silla's Fortress Construction in the Chungju Area

Roh, Byung-sik

The entry of Silla into the Chungju Area is estimated to be around A.D. 551 when Silla occupied the basin of the Han river.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Silla's stone fortress, which the Chungjusanseong Fortress displays, has a weaker wall structure compared to the Samnyeonsanseong Fortress built around the late 5th century. This kind of structure is evident until around the middle and late 6th and the early 7th centuries.

Gukwon Subcapital was installed in 557 in the modern Chungju Area. The Gukwonseong Fortress -with 2,592 bo(步) in circumference, was built in 673- is speculated to be the current Daerimsanseong Fortress. The fortress construction technique of Silla in the mid to late 7th century under the reign of King Munmu shows a recognition of the merits of the construction techniques of Baekje and Goguryeo. The construction of fortresses formed a part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defense system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and sovereignty over the major provinces in this period.

Gukwon Subcapital was renamed to Jungwon Capital in 757. Yonggwandongsanseong Fortress and Jangtaesanseong Fortress are located at a transportation hub and functioned as the defense system with other fortresses formerly built including the Jangmisanseong, Chungjusanseong, and Daerimsanseong Fortresses.

That the Jungwonbu, Gukwon, Chungju replaced the name of

Jungwon Capital after the late 9th century demonstrates the chaotic situation of the Later Three Kingdom Period which was dominated by powerful local clans. The Kyeonhakri Earthen Fortress and the multiple moat site in Jangtaesanseong Fortress, constructed on the hills surrounded by the plains and transportation hub, display new patterns.

Key words : Chungjusansung Fortress, Gukwonseong Fortresses, Daerimsanseong Fortress, Yonggwandongsansung Fortress, Jangtaesansung Fortress, Gyeonhakri Earthen Fortress, Jangtaesansung Multiple Moat Site.